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8 / 2010.2.26

□ IEA, '10년 비OPEC 석유공급 및 세계수요 전망치 상향조정

- IEA는 '10년 비OPEC의 석유공급 및 세계 석유수요를 전월 전망치대비 상향조정하고 OPEC의 콘덴세이트 및 NGL(Natural Gas Liquids)의 공급 전망치는 하향조정함.
- '10년 비OPEC의 석유공급은 전월 전망치대비 10만b/d 증가한 5,160만b/d로 상향조정함.
- '10년 세계 석유수요는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월 전망치대비 17만b/d 상향조정된 8,650만b/d로 예상함.
- '10년 對OPEC 수요(call on OPEC: 세계 석유수요량에서 비OPEC 공급량과 OPEC의 NGL을 차감한 수요량으로, 시장의 잔여 생산자(residual supplier)인 OPEC이 충족시켜야 수급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장 수요량을 의미)는 전월 전망치 대비 30만b/d 증가한 2,940만b/d로 예상함.
- 한편, '10년 OPEC의 콘덴세이트 및 NGL 공급량은 전월 전망치대비 20만b/d 하향조정된 550만b/d로 전망함.
- 이러한 전망치 하향조정은 '09년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의 관련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하여 콘덴세이트 및 NGL의 실제 공급증가량이 전망치인 46만b/d보다 적은 25만b/d로 나타난 것에 기초하고 있음.

(PIW, 2010.2.22)

NEWS

- IEA, '10년 비OPEC 석유공급 및 세계수요 전망치 상향조정
- 일본, 중국이 분쟁해역 가스전 개발강행 시 제소 방침
- 이토추 상사, 호주 석탄광구 개발 착수
- 일본 경제단체, 온실가스대책 법안 검증 요구
- INPEX, 호주 Van Gogh 유전 생산 개시
- 주부전력, 나가노현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 중국 국영석유사, 아제르바이잔 유전 지분매입 검토
- 페트로차이나, 티림분지에서 6만m³/d 생산가능 가스전 추가 발견
- 중국 '10년 석탄생산량 전년대비 11.5% 증가한 33억톤 전망
- 싱가포르, 탄소세 도입 검토
- 호주,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서 원자력 제외
- 미국 석유기업, 탄소배출 규제에 불만 표출
- 브라질 Petrobras, 이탄을 부축으로 40년 만에 후발유 수입
- 볼라비아, 화이트맨티나 천연가스 수출계약 재협정 체결
- 베네수엘라, 국가전력기금 조성 추진 공식화
- 칠레 신인 에너지부 장관, 수력 및 원자력 발전 개발 강조
- 페루 LNG 프로젝트, '10년 2분기에 첫 수출 예정
- 폴란드 제도, 풍력발전으로 총 발전량의 40% 공급
- 이집트코탈라, 경제시설 건설 위한 \$10억 규모 채권 발행
- 쿠웨이트, 셸과 가스전개발 계약 체결
- 이란, 벨라루스와 공동개발 중인 Jofeir 유전 곧 생산개시
- 이란, 금년 9월 20일까지 20개 발전소 민영화
- 이란, 2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건설 추진
- 요르단-프랑스, 우라늄 개발 계약 체결
- 러시아,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 EU, 청정자동차 개발 전략 발표 예정
- 영국, 세계 최대 풍력터빈 회전날 개발 지원
- 이탈리아, '10년 태양광 발전능력 2,000MW로 확대 예상
- 네덜란드,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300만 유로 지원
- 세계은행, 그린채권발행 규모 \$10억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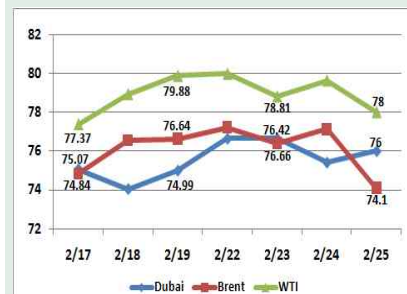
ANALYSIS

- 아테 지역 원자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
- EU, 석탄발전소 증가에 따른 EU ETS 보완조치 필요

REPORT

- OECD와 비OECD의 대조적인 석유수요 추이

Oil Prices (Spot, \$/bbl)





ASIA, AMERICA & MIDDLE EAST

□ 일본, 중국이 분쟁해역 가스전 개발강행 시 제소 방침

- 일본 정부는 중국이 분쟁지역에 위치한 동중국해 시라카바(白樺·춘샤오) 가스전의 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고 2월 21일 밝힘.
 - 지난 1월 17일 오카다 일본 외교성 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도쿄 회담에서 중국의 동 가스전 단독개발 행위는 양국 간 공동개발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대응조치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함.
 - 중국 정부는 가스전의 주권이 중국 측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이 중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협력개발에 투자 및 참여할 수 있으나, 협력개발은 공동개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 정부는 '04년 중국의 시라카바 가스전 개발착수에 항의하여 작업을 중단시킨 바 있음. '08년에는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개발대책에 대한 양국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음.
 - 일본은 '09년 동 가스전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천연가스 시추시설을 건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해왔음.

(毎日新聞, 2010.2.22)

□ 이토추 상사, 호주 석탄광구 개발 착수

- 일본 이토추상사는 2월 18일 자회사 IMEA(Itochu Minerals & Energy of Australia Pty Ltd)를 통해 호주 자원개발 기업 Coalworks사와 Vickery South 석탄 광구 공동 탐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석탄 광구는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구네다(Gunnedah)에 위치하며, 연료탄과 원료탄을 포함하여 연간 200만~400만 톤의 석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IMEA는 최대 A\$1,100만 규모를 투자하여 동 광구 지분 49%를 취득할 예정이다. 동 광구에서 석탄 생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경우 연간 100만~200만 톤 규모의 석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IMEA는 Coalworks사와 최종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며, 이토추는 동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판매를 위해 해외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Itochu, 2010.2.18)

□ 일본 경제단체, 온난화대책 법안 검증 요구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는 정부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지구온난화 대책 법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2월 23일 발표함.
 - 공동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과제이며,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공헌할 것을 언급함. 그러나 정책 실시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영향 등을 근거로 한 논의와 국민의 이해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구온난화대책세,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정책 전반과 관련한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법안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2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정책을 명시하는 동시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과의 공조체제 하에서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얻어 결정토록 요구함.

(電氣新聞, 2010.2.24)

□ INPEX, 호주 Van Gogh 유전 생산 개시

- 일본 INPEX(國際石油開發帝石)는 호주 북서부 Van Gogh 유전에서 생산을 개시했다고 2월 17일 발표함.
 - 동 유전은 동사의 자회사 알파석유와 오퍼레이터인 미국 아파치(Apache)



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며,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프로젝트로 4만b/d의 원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유전의 위치는 호주 북서부 엑스마우스(Exmouth)시 북서 50km, 수심 400m 지점에 있으며, '03년에 발견되었음. 투자지분은 INPEX가 47.5%, 미국 Apache사가 52.5%를 보유하고 있음.

(INPEX, 2010.2.17)

□ 주부전력, 나가노현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 일본 주부전력은 나가노현 이다市에 1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함. 市에서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전력회사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담당할 예정임.
 - 이다市가 제공하는 부지면적은 약 1.8만㎡이며, 주부전력이 약 1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10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11년 2월에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 동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약 100만kWh로 이는 300세대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해당하며, 연간 약 400톤의 CO₂ 감축효과가 예상됨.
- 주부전력은 자사 보유 화력발전소 부지 내 유휴지에도 태양광발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태양광 발전능력을 총 15~20MW까지 확대할 계획임.

(日本經濟新聞, 2010.2.23)

□ 중국 국영석유사, 아제르바이잔 유전 지분매입 검토

- 중국 CNOOC와 Sinopec은 미국 Devon Energy의 아제르바이잔 유전 지분의 매입을 검토 중임.
 - 일본 이토추상사와 INPEX 등 일본 기업과 유럽 및 미국 10개사 이상이 동 유전 지분매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Devon Energy사는 아제르바이잔 유전을 포함한 해외 자산 매각을 통해 최대 \$3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



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자사가 보유한 아제르바이잔 유전 지분 5.6% 전부를 매각할 계획임.

- 동사가 보유한 유전의 '08년 석유자원 매장량은 8,47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Record China, 2010.2.24)

□ 페트로차이나, 타림분지에서 6만^{m³}/d 생산가능 가스전 추가 발견

- 중국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차이나는 타림분지 잉마이(Yingmai) 광구 가스전에서 6만^{m³}/d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함.
 -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지역에 위치하는 타림분지는 주요 유·가스 매장지이자 국내 최대 가스전으로, 현재 천연가스 생산능력은 연간 200억^{m³}에 달함.
 - 페트로차이나는 타림분지에서 '09년에 전년대비 7억^{m³} 증가한 181억^{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중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임.
- 타림분지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09년 1,365억^{m³}이 추가되어 총 1.14조^{m³}로 확인됨.

(Dow Jones Newswires, 2010.2.22)

□ 중국 '10년 석탄생산량 전년대비 11.5% 증가한 33억 톤 전망

- 중국 물류정보센터(China Logistics Information Center, CLIC)는 '10년 중국의 석탄생산량이 '09년 29.6억 톤보다 11.5% 증가한 33억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발표함.
 - 올해 1분기 동안 중국의 석탄 공급이 저조하여 석탄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의 약세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올 한해 석탄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됨.
 - CLIC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계 전력 및 철강 생산이 소폭 확대되고 있으며, '10년 원유와 석탄을 포함한 에너지수요가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정정책 및 적정수준의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발전,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석탄소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ViewsWire, 2010.2.22)

□ 싱가포르, 탄소세 도입 검토

- 싱가포르 재무부는 탄소세 도입이 '20년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므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는 세계 각국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합의한다는 코펜하겐 협약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16% 감축하는 목표를 1월 28일 UNFCCC에 제출함.
 - 재무부는 싱가포르와 같이 소규모 시장인 경우 배출량거래제(cap-and-trade) 시행시 거래 및 모니터링 비용이 높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임.
- 지난해 싱가포르는 에너지효율대책과 청정운송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탄소배출량을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7~11% 감축하기 위해 \$7억 규모의 지속가능계획프로그램(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Programme)을 도입한 바 있음.

(Point Carbon, 2010.2.23)

□ 호주,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서 원자력 제외

-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원자력 발전을 금지하고 기타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함.
 - 러드 총리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및 해외 에너지의존도 감축을 위하여 신규 원자로 건설보다는 기타 다양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함 .
 - 한편 호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 발전은 적절한 규제조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 호주는 주요 석탄수출국이자 주요 우라늄 보유국가임.
- 호주는 지난해 국제 탄소포집저장연구소(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를 설립하였으며, 주요 선진국 및 에너지기업이 회원국으로 가입함.

(RTTnews, 2010.2.17)

□ 미국 석유기업, 탄소배출 규제에 불만 표출

- 미국 석유메이저 BP와 ConocoPhillips는 2월 16일 기후변화행동파트너십(US Climate Action Partnership, USCAP)을 탈퇴함. 이들은 USCAP 탈퇴 이유를 석유업계에 불리한 탄소배출 규제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함.
 -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자동차 연료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석탄에는 많은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함. 이들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 수단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법 제정을 위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음.
- 양사는 석유가스업계에 대하여 세금을 \$800억 인상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11년 예산안에도 불만을 표명함.
 - 멀바(Mulva) Conoco CEO는 의회 제출된 법안들이 탄소배출 감축수단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무시하고 석유가스업계에 가혹한 조치를 취한다고 비판함.
 - 니콜스(Nichols) 미국석유연구소 회장은 천연가스에 세금을 인상하고 원자력, 풍력, 태양열 발전에는 보조금을 제공하려는 정부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 R/D Shell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업계의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USCAP에 계속하여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Duke Energy, Exelon, NRG Energy 등의 전력기업들도 아직은 USCAP에 잔류기로 결정함.

(Financial Times, 2010.2.18)



□ 브라질 Petrobras, 에탄올 부족으로 40년 만에 휘발유 수입

- 브라질 Petrobras는 에탄올 부족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를 수입하였다고 Local Estado 통신이 전함.
- Petrobras는 휘발유 27만m³(약 200만 배럴)을 베네수엘라로부터 구매하여 2월 말에 공급받을 예정이다.
- 브라질에서는 '09~'10년 사탕수수 수확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혼합비율을 25%에서 20%로 축소하였음.
- 그러나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flex-fuel 차량 증가로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Dow Jones Newswires, 2010.2.17), (Reuters, 2010.2.18)

□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수출계약 재협정 체결

-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수출량을 '10년 500만m³/d, '13년에 1,600만m³/d, '17년 2,700만m³/d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와 재협정을 체결함.
- 볼리비아는 '06년에 아르헨티나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을 당시 최고 수준인 770만m³/d에서 '14년까지 4배(2,777만m³/d)로 확대하기로 첫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능력 감소로 재조정되었음.
-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로의 천연가스 수출 증대를 위해 양국의 국경을 잇는 기존 낡은 가스관을 새 가스관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 새 가스관은 지름이 36인치, 길이는 볼리비아쪽 20km, 아르헨티나쪽 40km에 달할 예정이다.
- 볼리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YPF는 '15년까지 천연가스 7,600만m³/d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생산 증대를 위해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볼리비아에서는 스페인 Repsol, 브라질 Petrobras, 프랑스 Total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06년 모랄레스 대통령의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 조치 이후 투자를 중단해 왔음.



- 그러나 '09년 말 Repsol 컨소시엄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15억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년 1월 Total은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5억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Reuters, 2010.2.22), (iStockAnalyst, 2010.2.22)

□ 베네수엘라, 국가전력기금 조성 추진 공식화

- 베네수엘라는 2월 22일자 관보(Gaceta Oficial)를 통해 국가전력기금(Fondo Eléctrico Nacional) 조성을 공식화하였음. 초기에 조성된 기금은 약 \$10억이며, 59개의 발전·배전 프로젝트와 50개의 전기설비 운용·관리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 서부 술리아(Zulia)주에서 화력발전소(planta termoeléctrica)를 증설하는 것임.
- 전력에너지부는 '15년까지 총 11,768MW 규모의 24개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총 3,228MW 규모의 4개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PetróleoYV, 2010.2.24)

□ 칠레 신임 에너지부 장관, 수력 및 원자력 발전 개발 강조

- 리카르도(Ricardo) 칠레 신임 에너지부 장관 내정자(3월 11일 취임 예정)는 수력발전 프로젝트 지원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2월 17일 발표함.
- 신임 내정자는 칠레의 가장 중요한 발전원인 수력발전 개발을 강조함. 그러나 이드로아이센(HidroAysén)이 진행하는 2.75GW급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여부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발표함.
 - ※ 이드로아이센(HidroAysén): 칠레 전력기업 콜분(Colbun)과 스페인 전력기업 엔데사(Endesa)가 설립한 합작회사
- 신임 에너지부 장관은 수력 및 천연가스 공급위기에 대비하여 원자력에너지 연구도 지속 해야하며, '18년 원전입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함.
- 칠레는 아르헨티나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아르헨티나의 천



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에너지위기에 처한 바 있음.

(BNamericas, 2010.2.17)

□ 페루 LNG 프로젝트, '10년 2분기에 첫 수출 예정

-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페루 LNG 프로젝트는 건설이 완료되어 '10년 2분기에 첫 수출을 시작할 예정임.

※ 다국적 컨소시엄: 스페인 Repsol YPF(지분 20%)·미국 Hunt Oil(50%)·한국 SK Energy(20%)·일본 Marubeni(10%)로 구성되어 있음.

- 페루 LNG 프로젝트는 페루 꾸스코(Cuzco)주 까미세아(Camisea)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생산·액화·수송하여 수출하는 프로젝트로 총 \$38억이 투자됨.
- 천연가스 액화설비와 해상선적터미널은 페루 리마(Lima) 남부 뽀뽀 멜 초리따(Pampa Melchorita)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가스전에서 408km의 수송파이프라인도 함께 부설되었는데, 동 프로젝트의 건설은 미국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기업인 CB&I가 맡았음.
- 페루 LNG 플랜트는 하루 6.25억ft³(1,770만m³)의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연간 LNG 44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임. 첫 LNG 수출은 수송선의 용량에 따라 15만~17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20회 선적할 예정임.

(BNamericas, 2010.2.23)

□ 포클랜드 제도, 풍력발전으로 총 발전량의 40% 공급

- 포클랜드 제도의 연간 풍력발전량은 2월 15일에 가동을 시작한 3개의 신규 풍력터빈으로 인해 총 발전량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 신규 풍력터빈은 '09년 9월 포클랜드 제도의 도시 Stanley로부터 6마일 떨어진 Sand Bay에 설치되었음. '07년에 이미 3개의 풍력터빈이 설치되었는데, 동 풍력터빈으로 연간 발전용 연료소비의 25%를 대체해왔음.
- 총 6개의 풍력터빈 가동으로 포클랜드 제도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의 40%를 공급할 전망이며, 발전용 수입연료의 40%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포클랜드 제도는 '96년 이후부터 풍력에너지 사용을 계획해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포클랜드제도개발회사(Falkland Is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FIDC)를 만들었음.

(MercoPress, 2010.2.17)

□ 아람코-토탈, 정제시설 건설 위한 \$10억 규모 채권 발행

- 사우디 아람코와 프랑스 토탈은 주바이 정제시설 건설을 위해 이슬람채권(Sukuk)을 발행할 예정임.
 - 도이치뱅크, 삼바금융그룹, 칼리온 은행이 채권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며, 채권발행 규모는 약 \$10억임. 이번 이슬람 채권발행 규모는 금년 들어 중동지역 최대인 것으로 판단됨.
 - 아람코와 토탈은 이번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하며 단기 금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슬람권 내에서 먼저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국제 일반채권 발행 가능성을 모색함.
 - 동 합작투자사업의 예산중 \$60억은 차관을 통해 조성함.
- 양사는 정제규모 40만b/d인 정제시설을 '13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지분의 25%를 판매할 계획임.

(Bloomberg, 2010.2.21)

□ 쿠웨이트, 셸과 가스전개발 계약 체결

- 쿠웨이트 KOC(Kuwait Oil Company)와 로얄더치셸은 쿠웨이트 북부에 있는 비수반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가스전 개발 기간은 5년이며, 쿠웨이트는 이번 비수반 가스전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을 현재 1.4억ft³/d에서 10억ft³/d로 확대하고자 하며, 셸은 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전문 기술력을 제공할 예정임.
- 쿠웨이트는 주변 아랍국들과 마찬가지로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의 가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스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LNG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08년 말부터 OPEC의 생산쿼터로 인해 동국의 가스생산량은 더욱 감소되었는데, 대부분의 쿠웨이트 가스는 원유생산시 수반되는 수반가스이기 때문임.
- 이번 비수반 가스전의 개발은 쿠웨이트의 가스공급 취약성을 극복하는데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ArabianBusiness.com, 2010.2.17)

□ 이란, 벨라루스와 공동개발 중인 Jofeir 유전 곧 생산개시

- Martynov 벨라루스 외무부 장관은 이란과 벨라루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란-이라크 국경에 있는 조페이르(Jofeir) 유전이 4~5개월 내에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Jofeir 유전은 이란-이라크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유전으로, 투자규모는 \$5억이며 초기 생산량은 원유 3만b/d, 천연가스 630만ft³/d로 예상됨.
 - '07년 9월 이란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벨라루스 국영 석유기업인 Belarusneft가 동 유전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09년 12월 합작투자회사인 Belpars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됨.
- Martynov 장관은 또한 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계기로 향후 원유 수송부문에서의 협력 증진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Zawya.com, 2010.2.17)

□ 이란, 금년 9월 20일까지 20개 발전소 민영화

- 이란 에너지부는 금년 9월 20일까지 20개의 발전소가 민영화될 예정이라고 밝힘.
 - 현재 6개 발전소가 이란민영화기구(Iranian Privatization Organization, IPO)에 민영화를 제안한 상태이며, 오는 3월 20일까지 4개의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민영화를 제안할 예정임.
 - 상기 10개 발전소 외에도 추가로 10개의 발전소가 9월 20일까지 민영



화될 예정이다.

- 민영화가 제안된 발전소 중 Khalij-e-Fars 및 Sahand 발전소는 이미 \$10억에 달하는 공모주 청약을 개시한 상태임.
- 이란은 '04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이란 경제부문의 민영화를 시행해왔음.
(Zawya.com, 2010.2.18)

□ 이란, 2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건설 추진

- 살레히 이란 원자력에너지기구 의장에 따르면, 이란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2기 더 건설할 계획임.
- 이란은 군사 공격에 대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산악지대에 건설할 계획이며, 농축시설에 사용될 새로운 원심분리기 모델에 대한 세부사항은 4월에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임.
- 한편, 이란이 이번 달에 나탄즈 시설에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서구 국가들과의 긴장관계가 첨예화된 바 있음.
- UN 원자력기구는 지난 주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이란은 연구 및 발전 기술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였음.

(Bloomberg, 2010.2.22)

□ 요르단-프랑스, 우라늄 개발 계약 체결

- 요르단과 프랑스는 Fillon 프랑스 총리의 요르단 방문기간 동안 요르단 우라늄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프랑스 AREVA와 요르단에너지자원회사(Jordan Energy Resources Inc.)의 합작투자회사인 JFUMC(Jordan French Uranium Mining Company)는 스와카, 칸 아자비브, 와디 마가르 및 아타라트 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 우라늄을 개발 중임.
- 동사는 해당지역에서 400ppm의 보통 등급 우라늄의 부존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르면 '12년부터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 동 계약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노천 채굴장 건설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임.
- 요르단의 우라늄 매장량은 14만 톤이며, 대부분은 지하 1.5m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채취가 용이함.

(Zawya.com, 2010.2.22)

EUROPE & AFRICA

□ 러시아,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 러시아는 현재 건설이 중단된 불가리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26억을 지원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러시아는 동 발전소에 대한 투자자가 선정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계획임.
- 키리엔코프(Kiriyenko)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 CEO는 러시아가 불가리아에 '10년 \$5.4억의 차관을 제공하고, '11년 \$20.6억을 제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2,000MW)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필요할 경우 러시아가 동 발전소의 지분을 획득할 가능성도 밝힘.
- 동 발전소는 불가리아의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불가리아는 이미 2,000MW급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음. 러시아가 제조한 원자로 (1,000MW) 두 개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발전소는 현재 자금 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임.

(Viewswire, 2010.2.22)

□ EU, 청정자동차 개발 전략 발표 예정

-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에너지효율적인 청정자동차의 개발 전략을 준비 중이며, 이를 5월에 발표할 예정임. 동 전략은 주력 차종인 전기자동차 뿐 아니라 수소자동차 및 바이오연료 자동차 등을 다룰 것임.
- 유럽의 자동차제조사들은 그동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부양책 실시를 요구해왔음. 청정자동차산업은 개별 국가 및 EU 차원의 탄소감



추목표와 석유수입의존도 탈피 계획으로 인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은 청정자동차 분야를 주도하기 위하여 '20년까지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100만대의 전기차를 운행하게 한다는 전략을 '09년 여름 발표하였음. 동 전략은 '30년까지 500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운행과 '50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도로교통의 실현을 목표로 함.
 - 독일은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청정자동차 연구 개발에 \$7억을 책정함. 또한 '12년부터 전기차를 구입하는 독일국민에게 \$7,000의 구매보상금을 제공하며, 8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전기자동차의 운행체계를 전력공급망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임.
- 첫 전기자동차는 '11년 초 프랑스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르노사는 전기자동차 분야를 선도할 계획으로 글로벌 전기자동차서비스 공급기업인 Better Place사와 협업중임.
 - 양사는 여러 국가에 배터리교체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기자동차의 제한된 주행 범위를 확대하려 함. Better Place는 도로체계가 잘 정비된 소규모 국가인 덴마크에서 배터리 교체 모델을 최초로 시험할 계획임.

(UPI, 2010.2.23)

□ 영국, 세계 최대 풍력터빈 회전날 개발 지원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세계 최대의 풍력터빈 회전날을 개발하는 'Britannia Project'에 80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개발을 담당하는 Clipper Windpower사는 '10년 3분기까지 뉴캐슬에 공장을 건설하고, '20년까지 500명을 고용해 10MW급 해상풍력터빈 회전날을 제조할 계획임.
- 동 결정은 풍력발전에 대한 세 번째 자금지원으로, DECC는 이미 1,800만 파운드의 환경전환기금(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ETF)을 두 차례에 걸쳐 7개 풍력발전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음.
 - DECC는 Britannia Project 수행 시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과 차별된 기



술을 사용해 해상 풍력터빈을 개발하도록 요구함.

(DECC, 2010.2.18)

□ 이탈리아, '10년 태양광 발전능력 2,000MW로 확대 예상

- 유럽 3위의 태양광발전 시장인 이탈리아는 '10년 총 2,000MW의 태양광 발전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발전업자들이 현 태양광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 FIT)가 만료되기 전에 발전설비 설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임.
- 태양광발전은 FIT가 도입된 '07년 이후 이탈리아에서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 현 FIT 제도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발전능력이 1,200MW에 도달하면 만료될 예정이며, 동 수치는 '10년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 국영에너지관리업체 GSE(Gestore dei Servizi Energetici)는 현재까지 약 1,000MW의 태양광 발전능력이 설치되었다고 발표함. GSE는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능력은 800~1,000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FIT 제도와 태양전지 가격하락 덕분에 이탈리아의 태양광발전 붐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가격의 하락을 반영한 새로운 FIT 제도의 발표를 연기하였음. 이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태양광 발전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Reuters, 2010.2.18)

□ 네덜란드,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300만 유로 지원

- 암스테르담은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총 300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 발표로 '15년까지 1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 암스테르담의 계획에 탄력이 붙음.
- 암스테르담의 기업들은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가격의 50%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전기자동차에



는 무료 주차 혜택이 제공될 예정임.

- 보조금 상한은 승용차의 경우 15,000유로, 밴은 25,000유로, 트럭 또는 택시는 45,000 유로임. 전기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기업은 최대 20대까지 최고 25만 유로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암스테르담은 향후 2년간 교통요충지에 약 200개의 충전소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충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임. 암스테르담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EU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형전기자동차인 'TH!NK CITY' 4,500대를 보급하였음.

※ THINK CITY: 노르웨이의 전기자동차제조사 THINK의 주력 모델로, '91년 원형 개발 이래 '99년 양산이 시작되어 '07년 5번째 모델이 출시됨.

(Energy Efficiency News, 2010.2.19)

□ 세계은행, 그린채권발행 규모 \$10억 초과

- 스웨덴의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발행된 세계은행의 그린채권 규모가 \$10억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 투자자들은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그린채권을 구입하였으며,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저탄소프로젝트를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줌.
- 최근 발행된 채권규모는 약 \$7천만에 달하며 채권만기일은 '17년 12월 15일로 3.25%의 이자율이 적용됨. 투자기관은 스웨덴 국교회(the Church of Sweden), 유럽 민간은행 및 보험회사, 스웨덴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 SEB 은행은 세계은행의 그린채권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Reuters, 2010.2.22)



1. 아태 지역 원자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

□ 요약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향후 에너지수입 의존도 확대 및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개발이 유력한 대안임. 중국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을 '07~'35년간 약 9배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자력발전의 신규 도입국은 원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자국 내에서 구축하는데 어려운 경우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원자력 개발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우선 원자력발전소 건설 능력이며, 여기에 계획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포함됨.

□ 주요 내용

-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수급
 - '35년까지 아태지역 경제성장률은 베트남이 연평균 6.3%, 중국 5.6%, 한국 2.8%,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2.7%의 성장이 전망되며, 일본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1.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수요

항목	경제성장률 연평균: %	1차 에너지소비			발전전력량		
		석유환산: 백만 톤		연평균 증가율: %	(TWh)		연평균 증가율: %
국명		'07년	'35년		'07년	'35년	
일본	1.1	514	493	-0.1	1,123	1,359	0.7
중국	5.6	1,765	3,451	2.4	3,279	7,667	3.1
한국	2.8	222	341	1.5	426	658	1.6
인도네시아	4.2	138	378	3.7	142	665	5.7
말레이시아	4.2	70	144	2.6	101	353	4.6
필리핀	4.3	32	112	4.5	60	255	5.3
태국	4.3	86	234	3.6	143	485	4.5
베트남	6.3	31	154	5.9	69	380	6.3
오세아니아	2.7	141	181	0.9	298	521	2.0

출처: IEEJ 아시아·세계에너지Outlook 2009

- 1차 에너지소비는 베트남이 연평균 5.9%, 중국 및 기타 ASEAN 회원국



이 2~4%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1.5%, 오세아니아 0.9%, 일본 -0.1%로 전망됨. 발전전력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개도국이 3~6%, 선진국은 1~2% 수준으로 전망됨.

○ 에너지수입 의존도 확대

- 아태 지역의 국가들은 타 지역에 비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혜택이 적어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이 높음. 특히 석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임. BP 통계에 따르면, '08년 아태 지역의 석유 순수입량은 약 7.4억 톤에 달하며, 석유 총수입 중에 약 60%가 중동지역에서 수입되고 있음. 향후 동 지역은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중동지역 석유에 대한 수입 의존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아태 지역의 석유 무역

(단위: 백만 톤)

	일본	중국	싱가포르	기타 아태	호주·NZ	총
수입	244.2	217.8	130.9	345.7	43.6	982.2
(중동 수입량)	196.9	92.0	53.1	238.3	5.4	585.7
(중동 비중)	80.6%	42.2%	40.6%	68.9%	12.4%	59.6%
수출	17.1	18.8	76	116.5	15.5	243.9
순수입	227.1	199	54.9	229.2	28.1	738.3

출처: BP 통계 2009

○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제약

- 아시아의 CO₂ 배출량은 '07년 107억 톤에서 '35년에는 84억 톤 증가된 19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 가운데 중국은 60억 톤에서 98억 톤으로 1.6배가 늘어나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기타 아시아 국가들도 21억 톤에서 50억 톤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자력 개발 필요성

- 아태 지역 국가들은 향후 에너지수입 의존도 확대 및 지구온난화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에너지절약 추진과 청정석탄 이용 등 에너지



지 정책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원자력 개발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됨.

- 중국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을 '07~'35년간 약 9배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및 일본도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자력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아태 지역의 원자력 개발

항목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원자력 발전량	
	(백만 kW)		(TWh)	
국명	'07년	'35년	'07년	'35년
일본	50	63	264	470
중국	9	81	62	554
한국	18	31	147	257
인도네시아	0	0	0	0
말레이시아	0	1	0	9.1
필리핀	0	0	0	0
태국	0	1	0	9.1
베트남	0	3	0	18
오세아니아	0	0	0	0

출처: IEEJ 아시아·세계에너지Outlook 2009

○ 원자력 개발 과제와 해결방향

- 원자력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있음. 특히 원자력 발전을 새로 도입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어려운 과제가 부상될 것임. 원자력발전 신규 도입국은 무엇보다도 원자력 개발을 실시하는 기반을 구축해야함. 자국 내에서 구축하는데 어려운 경우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 원자력 개발 기반구축에 중요한 것은 우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능력이며, 여기에 계획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포함됨. 다음으로 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가동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철저하게 안전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정부 규제에는 전통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핵안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됨.
- 정부와 사업자 모두 핵확산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능력도 필요함. 원자



력 선진국은 아태 지역에서 새로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에 건설, 가동, 안전규제, 핵확산금지 등 각 부문에 대해 협력해야함.

(eneken.ieej.or.jp, 2010.2.22)

2. EU, 석탄발전소 증가에 따른 EU ETS 보완조치 필요

□ 요약

- EU의 에너지부문 탈탄소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EU 내 석탄발전소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현 ETS 제도 하에서 CCS를 통한 탄소배출감축 가능성은 낮음.
- 각 회원국은 탄소배출감축을 위하여 EU ETS의 보완 조치를 도입하려 하나 EU는 통합오염방지관리지침을 근거로 회원국의 독자적인 탄소배출 감축 수단 도입을 반대함.

□ EU 석탄발전소 현황

- EU는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라는 야심찬 계획을 설정하였으나, 회원국들은 계속하여 석탄발전소를 대거 건설하고 있음. 현재 60개의 석탄발전소가 계획 단계에 있거나 건설 중임.
 - 이론상 석탄발전소가 증가하여도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기술을 통해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60개의 발전소 중 일부만이 CCS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나, 이러한 발전소들도 실제 CCS 기술을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음.
- EU는 약 40억 유로를 대규모 CCS 시연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CCS의 시행 여부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 trading scheme, EU ETS)가 설정할 배출권 거래 가격에 달려있음.
 - EU ETS는 기업이 CCS 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됨.



□ EU ETS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EU와 회원국의 입장

- EU ETS 제도 하에서 석탄발전소의 증가는 탄소배출상한선을 낮게 설정하려는 정치인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EU의 주요 산업부문 탄소배출 통제수단인 EU ETS를 보완할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다수의 회원국이 개별 발전소의 탄소배출기준 등 EU ETS를 보완할 다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현 전력부문지침 하에서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신규 발전소의 건설허가 요건을 규정할 권리가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03년 EU ETS 도입과 함께 수정된 통합오염방지관리지침(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IPPC directive)지침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배출기준, 배출상한 등의 탄소배출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에 근거하여 EU가 설정한 기준 보다 높은 국가별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EU 각료회의와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IPCC 지침에 대한 검토 회의를 '10년 3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임.

(Viewswire, 2010.2.22)



OECD와 비OECD의 대조적인 석유수요 추이

□ 요약

- '10년 1월 세계 석유수요는 개발도상국의 빠른 수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동기대비 1.3백만b/d 증가,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
- 비OECD 지역의 석유수요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반면, OECD 석유수요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냄.
 - 미국 및 유럽 주요 선진국의 석유수요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우려 확산은 향후 해당지역의 석유수요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됨.
- 한편, 중국을 필두로 한 비OECD 국가의 석유수요 증가세는 향후 세계석유수요 회복 전망을 유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지준율 인상정책 등 긴축재정 정책 추진은 석유수요 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내용

- 최근 세계 석유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비OECD 지역의 석유수요 증대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함.
 - '10년 1월 기준 중국의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8.8백만b/d를 기록,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중국에 이어 브라질의 석유수요 역시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2.5백만b/d를 기록하여 세계 석유수요 회복을 주도함.
 -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율 추가인상 및 대출억제 정책 발표 등 중국의 긴축재정정책 추진은 석유수요 회복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유발함.
- 반면 OECD 국가의 석유수요는 최근 흑한으로 인해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전체 석유수요는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동절기 북반구 지역의 혹한으로 북미 및 유럽지역의 난방유 수요는 예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 석유제품 수요는 감소함.
-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5개국(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향후 세계 석유수요 회복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세계 지역별 석유수요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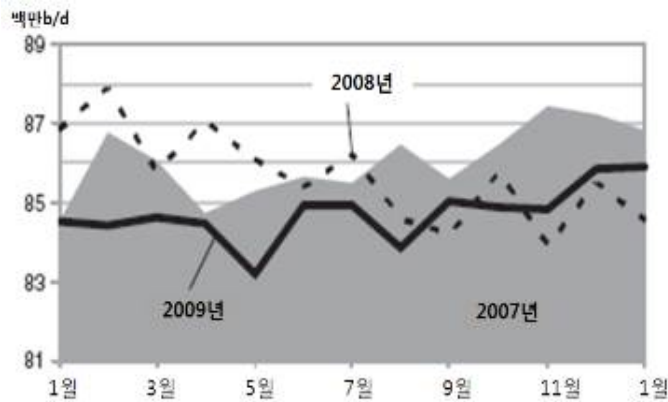
	'10년		'09년	
	1월 (천 b/d)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12월 (천 b/d)	1월 (천 b/d)
북미	23,347	-2.0	23,721	23,817
미국	18,750	-2.7	18,947	19,275
서부유럽	14,406	-2.4	14,686	14,755
유럽Big 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7,425	-3.6	7,594	7,700
EU-15	12,417	-2.6	12,630	12,754
OECD	45,952	-1.8	46,892	46,805
중국	8,801	+15.7	8,713	7,609
브라질	2,538	+14.4	2,658	2,219
비 OECD	39,924	+5.8	39,964	37,732
세계 전체	85,876	+1.6	86,855	84,537

자료: OMI

- '10년 1월 세계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85.9백만b/d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08년 1월 대비 1백만b/d 적은 수준임.
- 비 OECD의 석유수요는 제조업 부문 및 수송부문의 석유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5.8%증가한 39.9백만b/d를 기록함.
- OECD 국가의 경우 동절기 석유수요의 증가폭이 예상보다 커, '09년 2월 석유수요량은 46.9백만b/d를 기록했으나 '10년 1월의 수요량은 46백만 b/d로 오히려 감소함.
- 미국은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호전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요 감소세를 지속, 특히 '10년 1월 기준 미국의 증유 소비는 석유수요의 경질화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하여 석유 제품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최근 3년간 세계 석유수요 추이



-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위기는 향후 석유시장 변동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1월 기준 독일의 석유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감소에 불과 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9% 감소했음.
 - '09년 초 세계석유수요가 크게 부진했던 것을 감안할 때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촉발은 사상 유래 없는 석유수요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브라질의 석유 수요 증가세는 가장 두각을 나타냄. '09년 브라질의 석유수요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 10만b/d 증가함.
 - '10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약 5%로 전망됨에 따라 석유수요는 약 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il Market Intelligence, 2010.2)